

이초석 목사 주일설교(롬5:12~21)



한 사람이 미치는 영향력

저는 한 사람 앞에서는 백 사람 앞에서는 십만 명 앞에서는 동일하게 설교합니다. 똑같은 톤으로 열과 성을 다합니다. 그런 저를 보고 적은 숫자 앞에서는 힘 빠지 말고 좀 살살하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럴 수 없음은 그 중 한 사람만 변화되어도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생각이 저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가 대형집회를 많이 하는 편인데 이를 두고도 말들이 많습니다. 돈 낭비라는 겁니다. 강권적으로 데리고 와서 자리를 채우니 일회성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그 많은 사람 중 한 사람만 변화되면 됩니다. 그 사람이 디엘 무디요, 조지 무러요, 저 이초석 아닙니까? 세계 목회자 영성세미나도 큰돈을 들여 몇 차례 했습니다. 거금을 들인 만큼 효과가 있었느냐고요? 있다마다요. 아르헨티나 올리엘 목사, 벨라루스 슬라바 목사, 멕시코 벤자민 목사, 로렐리오 목사, 우루과이 라구나 목사, 우크라이나 슬라바 목사, 블라디미르 목사, 나이지리아 모세 목사 등등... 그들이 지금 그 나라의 영향력 있는 영적 지도자로, 교회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영향력은 이처럼 큰 것입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왕래하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사하리라”(렘5:1). 바벨론 제국을 통해 유다 왕국을 징계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경고에 예레미야가 눈물로 호소하자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진리를 구하는 한 사람만 있으면 나라를 멸망시키지 않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을 찾지 못해 유다왕국은 멸망하고 맙니다. 그 시대 그 사건만 그렇습니까? 현대는 더욱 그렇습니다. 한 사람이 국가를 살리고 죽일 수 있습니다. 히틀러 하나로 인해 유대인 600만 명이 죽임을 당하고 패망한 독일이 동서로 나뉘어 오랫동안 엄청난 고통을 당했던 것 아닙니까? 반면 스티브 잡스 한 사람이 미국 경제회생에 얼마나 큰 역할을 했습니까?

딱정벌레 하나가 거목을 쓰러뜨린다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입니다. 이제 난 핏덩이가 무슨 죄를 지었겠습니까만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한 사람 때문입니다. 최초의 사람, 아담 때문입니다.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롬5:12).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해 죄가 유전되었고, 우리 안에서 사망이 왕 노릇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났고 의인이 되었습니다.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십니다. 그 분으로 인해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았고 생명 안에 거하게 되었습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롬5:18).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한 죄 대신 예수님의 순종이 우리를 죄와 저주와 사망에서 건진 것입니다. 곧 예수 안에 있으면 아무런 조건 없이 구원을 받게 되는 엄청난 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

어 저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요12:24). 이 말씀이

야말로 한 사람의 영향력에 대해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되었고, 요셉 한 사람이 애굽과 동족과 가족을 살렸습니다. 에스터 한 여인으로 인해 유대민족의 운명이 달라졌고, 룻으로 인해 그의 가문이 일어났으며, 사도 바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유럽이 복음화되었고, 그의 13서신은 영원히 우리의 믿음을 지키게 합니다. 믿음의 사람, 링컨 한 사람으로 인해서 노예해방이 이루어졌고, 루터 한 사람으로 인해 종교개혁이 일어났으며, 웨슬러 한 사람이 죽어가던 영국 교회를 살렸습니다. 선교사 하나가 이 대한민국을 복음화 하고, 영향력 있는 선교국가로 만든 겁니다. 그들은 한 알의 밀알이 되어 많은 열매를 맺은 자들입니다. 반대로 악한 영향력을 미친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간 한사람의 범죄가 이스라엘의 처절한 패배로 연결됐고, 요나 한 사람으로 인해 배가 풍랑을 맞은 것처럼 말

입니다. 루시엘 하나로 인해 많은 천사가 타락하여 악의 영이 된 것 아닙니까? 그 파장은 그야말로 엄청나서 세상의 모든 죄악을 도모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고로 딱정벌레 하나가 백 년 된 거목을 쓰러뜨리고, 우렁이 하나가 저수지를 망치는 겁니다.

‘다 위대한 사람 이야기지, 나 같은 것이 무슨 영향을 미치겠어? 나 혼자 살아내기도 버거운데...’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누구든 영향력을 끼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선한 영향력이나 악한 영향력이나의 차이일 뿐입니다. “예수께서 경계하여 가라사대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막8:15), “천국은

지금 여자가 가루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마13:33). 누룩이 좋은 의미로든, 나쁜 의미로든 퍼져 영향을 끼치는 것과 같습니다.

나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가, 아니면 나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가 생각해봐야 합니다. 내가 의의 병기로 쓰임을 받고 있는지, 불의의 병기로 쓰임을 받고 있는지 지금 살펴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아브라함 같은 영향력을 끼쳤으면 합니다.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고향과 부모와 친척을 떠나 하나님께 순종했고, 백세에 얻은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 했을 때도 순종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찌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창12:2~3)고 축복하셨습니다.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신데, 그 복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입니다. 아

브라함으로 인해 모든 족속이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당신 한 사람으로 인해 가족이 복을 받고, 기업이 복을 받고, 국가가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 먼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 하나님 제일중심으로 사는 삶을 살아야 하고, 언행심사가 선한 길로 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당신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며, 아브라함에게 복의 근원을 선포하신 하나님이 당신에게도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들어본 적이 없고 마음으로도 생각해 보지 못한 복을 쏟아 부으실 것입니다. 당신으로 인해 가족이, 기업이, 교회가, 국가가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빛과 어둠은 공존할 수 없다

‘나 같이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요?’ 하십니까? 야곱과 에서 중 하나님은 차자인 야곱을 사랑하셨고, 이새의 여덟 아들 중 가장 별 볼 일 없는 막내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으며, 자기 가문에서 가장 약하고 작은 자인 기드온을 통해 하나님은 선한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중심을 보십니다. 당신이 옳은 일, 바른 일,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할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좋은 누룩과 같이 퍼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 같이 비천한 자를 택하셔서 당신의 종을 삼으셨고, 그 누룩이 퍼져 세계를 예수중심으로 이끌게 하셨으며, 가문에 목사가 셋이요, 전도사 셋을 배출케 하셨지 않습니까?

우리 작은 것부터 실천합시다. 가정에 들어가면 당신으로 인해 가정이 따뜻해지는 사람이 되세요. 당신만 들어가면 싸늘해지게 하지 말고요. 당신이 교구에 가면 교구식구들이 당신으로 인해 활기가 넘치고, 전도와 기도예 열심이 일게 하세요. 당신이 가면 분란이 일어나게 하지 말고요. 당신이 회사에 가면, 당신이 속한 단체에 가면 당신으로 인해 밝아지고 화기에 애해지도록 말과 행동과 생각을 옳고 바르게 하세요. 화기에 매하게 하지 말고요.

나의 현주소, 곧 나의 말과 행동이 어떠한지, 그리고 나의 신앙이 어떠한지 돌아보아 내 가족과 내 교회와 내 기업과 내 국가에 축복의 근원, 구원의 근원이 되는 사람이 됩시다. 할렐루야!

구제 및 선교 후원금

1379-01-001903

농협

695001-01-122494

국민은행

예금주: 예수중심교회

:: 객원컬럼 ::

:: 오늘의 메시지 ::

리스크를 제어하라

위험(risk)이란 일어날 일보다 더 많은 일이 일어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투자는 바로 미래를 상대하는 것인데, 우리 누구도 미래에 대해 확실히 알지 못하므로 리스크를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신중한 사람들은 리스크를 회피하거나 최소화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선택한 투자대상에 얼마만큼의 리스크가 존재하는지, 그 리스크를 감수할 수 있을지에 대해 판단해야 합니다. 그러나 투자자가 그 이상으로 꼭 해야 할 일은, 투자수익이 그에 따르는 리스크 감수를 정당화하는지 알아내는 것입니다. 리스크는 상황이 잘못될 경우 손실이 일어날 가능성입니다. 결국 리스크란 어떤 결과가 발생할 것인지, 그리고 원치 않는 결과가 나왔을 때 손실 가능성은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 불확실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손실 위험을 낳을까요?’ 손실 위험은 꼭 펀더멘털이 부실해서 생기는 것은 아니며 주로 지나친 낙관심리, 그리고 그로 인해 지나치게 상승한 가격에 원인이 있습니다. 즉 투자 리스크는 주로 너무 비싼 가격 때문에 발생하고, 너무 비싼 가격은 지나치게 낙관하여 충분히 의심하지 않고 위험을 회피하지 않는 데서 나오게 됩니다. 시세가 안정적이거나 오르고 있을 때, 우리는 포트폴리오가 얼마나 큰 리스크를 포함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 일 없이 시간이 흐른다고 해서 그 상태가 지속될 것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이는 워렌 버핏이 “썰물

일 때만 누가 벌거벗고 수영하는지 알 수 있다.”고 말한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밀물이 영원히 가려줄 것이라고 생각해서 안 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수익을 위해 현명하게 리스크를 감수하는 것이 중요하데, 예상 수익이 리스크에 대한 보상보다 훨씬 크다는 확신이 들 때만 투자하는 것입니다. 장기적인 투자 성공으로 가는 길은 공격적인 투자보다는 리스크 제어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훌륭한 투자는 수익을 창출하며, 리스크를 제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시장은 투자자들의 동향에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그에 따라 형세를 바꾸는 역동적인 장소이기에 투자자는 자신감이 커질수록 더 많이 경계해야 합니다. 투자자가 커져갈수록 리스크는 가장 인지되지 못하는 곳에 가장 크게 도사리고 있고, 반대로 가장 큰 리스크가 있다고 생각하는 곳에 가장 적은 리스크가 있습니다. 영적인 측면에서의 리스크는 아무 일 없이 시간이 흐를 때 방심하여 기도하지 않아 마귀에게 공격 당할 원인을 제공하는 데서 비롯됩니다. 혼이 구렁이에 빠지지 않고 생명이 칼에 멸망치 않으려면(요 33:15~18) 성령 충만하도록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깜박 졸며 혹은 깊이 잠들 때에나 꿈에나 환상으로 계시하실 때 우리의 귀가 열리도록 숨 쉬듯 무시로 기도함으로써 영적인 리스크를 제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미경

lmkwdf@hotmail.com

:: 성경에세이 ::

의욕이 없으면

여보게!
요즘 내가 접하고 있는 두 호텔을 보면서 든 생각을 말해보려 하네. 내 사무실이 있는 호텔은 얼마 전에 문을 닫았네. 사드 문제로 한중관계가 악화되어 중국인들의 관광이 줄어들다보니 적자가 계속되어 결국 호텔 문을 닫은 거라네. 그런데 말일세, 내가 다니는 또 하나의 호텔은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도 리모델링을 하는 등 분주히 호텔 업그레이드에 힘쓰고 있네. 아버지를 이어 아들이 운영권을 쥐면서 일어난 변화라네. 이 호텔이라고 중국 관광객이 줄어들지 않았겠나 마는 이를 대처하는 모습이 내 사무실이 있는 호텔과는 사뭇 다르네. 과연 이 두 호텔의 차이는 무엇일까 생각해봤네. 결론은 의욕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더라고. 자고로 적보다 무서운 것은 무능한 지휘관인데, 여기서 무능하다는 것은 못 배운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의욕이 없음을 뜻하지. 최선의 방어는 최대의 공격이라네. 그런데 ‘지금 적자니까’, ‘지금 힘드니까’ 하고 뒤로 물러나면 그 호텔처럼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거야. 위기는 위험한 기회가 아닌가. 이럴 때일수록 차고 나가야

하는 거라네. 위대한 업적은 커다란 위험을 감수한 결과가 아니겠는가.

여보게!

의욕이 없는 병사의 어깨에 걸친 총은 적을 죽이는 무기가 아니라 그저 어깨를 누르고 있는 짐에 불과하다네. 그저 무겁고 거추장스러울 뿐이지. 모든 게 다 그렇다네. 의욕이 없으면 학교에 가는 것도 어렵 수 없이 가는 것이고, 직장에 나가는 것도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나가는 것밖에 안 되네. 그런데 의욕이란 꿈이 있을 때, 목표가 생길 때 불일 듯 일어나는 거라네. 바디매오가 눈을 뜨고야 말겠다는 꿈과 목표가 생기자 누가 뭐라고 하든, 밀치든 상관없이 의욕적으로 예수를 부르지 않았는가. 중풍병에 걸린 친구를 살리고야 말겠다는 목적이 있었기에 지붕을 뚫는 의욕이 발산된 거라네. 나 역시 세계를 교구화 하겠다는 꿈이 있었기에 환난과 핍박 중에도 의욕이 꺾이지 않은 결세. 의욕은 넘지 못할 벽이 없네. 그러니 꿈을 가지고 의욕적으로 일하게나. 그래야 자네가 바라는 것들이 현실이 될 결세.

朋友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근래 이사예배를 갔다가 믿음의 간증을 들었다. 25평 아파트에 살던 집사님. 34평이 때 물로 나온 것을 보고 너무도 마음에 들어 앞뒤 생각 않고 믿음으로 계약을 해 버렸다. 이제 살던 집을 빼야 하는데, 요즘 부동산 경기는 쏠쏠 얼어버렸고 은행권도 여의치 않다. 믿음으로 벌린 일, 믿음으로 마무리해야 하는 법! 아침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집은 속히 팔릴지어다.” 명령하고, 저녁마다 애 통하며 부르짖어 기도하길 한 달 만에 25평을 팔고 34평으로 들어왔단다. 진정 원하는 것이 있는가? 믿음으로 애 통하며 부르짖어보라. 안 될 것이 없으며 하루만에도 흥해가 갈라진 것 같은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믿음은 그 시대 그 역사나 이 시대 이 역사나 변치 않는 자에게 동일하게 역사하신다. 야고보는 엘리야가 우리와 성정이 똑같다고 기록

하고 있다. 엘리야가 하늘 문을 열었으면 우리도 열 수 있다는 것이다. 모세, 아브라함, 다윗이 했다면 우리도 동일하게 믿음을 들어 할 수 있다. 우리 목사님은 현 시대의 영적 상태를 개탄하시며 초대교회로 돌아갈 것을 강하게 주장하신다. 예수만을 의지하여 무엇이든 기도함으로 이루어나가는 초대 교회의 믿음은 곧 우리의 믿음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다. 새로운 해에는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바라고 원하는 것들을 믿음으로 그리자. 그리고 하나님께 애통하며 부르짖어 기도하자.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또한 우리의 능력에 맞는 일을 구하지 말고, 일에 맞는 능력을 하나님께 구해보자. 생각이 많으면 힘들고, 믿음과 기도가 많으면 쉬울 것이다. 김상욱 목사

ksw9669@hanmail.net



:: 생명의 말씀 ::

사랑 받기와 사랑하기

독일의 대문호 괴테의 이야기다. 그는 예수님을 존경하고 믿으나 교회는 나가지 않았다고 한다. 그 이유는 당시 독일 교회에 크게 실망했기 때문이다. 어느 날 그는 오랜만에 교회에 갔다. 그런데 그 교회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모두 ‘하나님, 저를 아니면 우리를 축복해주옵소서.’로만 끝났다고 한다. 아무리 들어봐도 ‘하나님 우리를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가 세상에 나가 예수님처럼 죽기까지 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하는 실천적 다짐이 없었다고 한다. 이 기도는 괴테가 가 본 모든 교회가 그랬다고 한다. 그 일로 그는 예수님은 믿으나 교회는 나가지 않았다고 한다. 그렇다면 우리의 기도와 삶은 어떨까? 어린 아이와 같이 하나님께 달라고만 하고 있지는 않는가?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 ‘내가 어릴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 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 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 아이와 같다가 내가 어른이 되어서는 어린 아이의 일을 버렸노라’고 했다. 어린 아이들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자기밖에 모른다는 것이다. 받은

려고만 하지 좀처럼 주려고 하지 않는다. 그러나 참으로 성숙한 사랑은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만 생각하고 받으려고만 하는 사랑이 아니라 오히려 베푸는 사랑인 것이다. 사랑의 대상을 자기 자신에서 다른 사람으로 옮기는 것이다. 우리의 사랑은 어떤가? 어린 아이처럼 내가 먼저 사랑하기보다는 내게 사랑을 주기를 바라고, 사랑의 양을 따지지 않는가. ‘나는 이렇게 하는데 상대방이 정말 느끼고 있을까? 알고 있을까? 혹시 내가 손해 보는 사랑을 하고 있지 않은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도 그 사람이 내게 이익이 되는가를 따져 그에 따라 사랑하지 않는가.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아무런 조건 없이 끝까지 사랑하신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예수님처럼 어른스러운 사랑하기를 소원하며, 이웃을 사랑하되 아무런 조건 없이 사랑해야 한다. 이것이 진정한 기독교 정신이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고전 13:4~7).

임택함 목사

cjcc1004@hanmail.net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할렐루야!
2018년 새해를
소망 가운데 바
라보며 설레는
마음으로 글을
올립니다.
지난 2012년 태
국집회 영상을

통해 보셨던 것처럼, 저는 태국 치앙라이 고산족 마을에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총회장 목사님과 교단 장로님들의 도움으로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하였고, 현재는 김포 지역에 거주하며 작은 성전에서 한국에 거주하는 태국인들을 전도하여 주일에배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가장 감사하고 은혜로운 것은 오랜 세월 핍박이 심했던 남편(황종만 장로)이 오랜

세월 눈물의 기도로 변화되어 이 모든 선교사역에 앞장서서 동참해주었다는 것입니다. 태국어가 부족한 저 혼자서는 감히 엄두도 못 낼 사역이었는데 하나님께서 태국어에 유창한 남편을 이렇게 쓰시려고 변화시켜주시는 역사를 보여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태국 치앙라이에 성전을 건축한 후, 태국인 목사님께 위임하고 현재는 한국을 오가며 사역 중입니다. 최근에 다녀온 바에 따르면, 그동안 교인들의 믿음이 많이 성장하여 이제는 십일조를 드리는 성도들도 많아져서 성전을 더욱 아름답게 꾸미고 예배 드리는 모습에 큰 은혜와 감동을 받았습다. 이 모든 게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인간이 할 수 없는 역사임을 다시 한 번 깨달아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리 기쁘니 하나

님 보시기엔 얼마나 기쁘실까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고후5:17) 라고 하신 말씀처럼, 2017년은 지나갔으니 뒤돌아보지 말고, 2018년 새해에 앞만 바라보며 기도로 나아갈 때,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에 임하여 힘찬 이 땅의 삶에서도 주님의 참된 평강과 기쁨으로 이겨낼 힘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늘에만 소망을 두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갈 때, 우리와 늘 동행하시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삶이 되도록 만들어주십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안에서 참된 평강과 승리의 삶을 사시는 2018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태국 선교사 권영화 전도사**

나를 축복하라

병자는 병든 자의 모습으로, 죄인은 죄진자의 모습으로, 상한 자는 상한 자의 모습 그대로, 진실 되게 주님께 나아가 긍휼을 구하면 되는데 자꾸 감추고 숨긴다. 건강한 척, 의인인 척, 아무렇지도 않은 척, 고통 속에서 허우적거리면서도 곁을 꾸미고 체면으로 포장하며 살아간다. 마치 자신의 모습을 보지 못하는 바리새인처럼 말이다. ‘나는 흠이 없는 의인’이다. 그러나 세리는 ‘가슴을 치며 나는 불쌍한 죄인’임을 고백했다(눅18:10~14). 주님은 자신을 의롭게 여기는 자가 아닌 눈물로 죄인임을 고백하는 세리가 더 의롭다고 말씀하셨다.

다윗의 위대함이 무엇인가? 다윗은 왕이었지만 선지자의 말씀이 떨어지는 그 자리에서 정직하게 납작 엎드려 죄인임을 자복한다. 밧세바를 취함으로 책망 받던 그 자리에 나단 선지자만 있었겠는가? 수많은 문무백관들도 있었을 것이고, 다

윗의 자녀와 시종들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다윗은 용서할 받지 않으면 죽을 죄인의 모습, 상한 자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간다. 그런 다윗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신다.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행 13:22).

우리 목사님께서도 세계 복음화에 매진하며 몸을 돌보지 않은 결과로 간의 기능을 90% 상실했다고 하셨다. 그 때 목사님은 모든 집회일정을 뒤로 미룬 채 기도원으로 내려가셨다. 병고치고 귀신 쫓는 세계적인 목사님으로서 그런 결단을 내린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이다. ‘만약 우리 목사님이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세계를 바라보았다고 해도 과연 그러셨을까? 아마도 감추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든다. 그때 무수한 유언비어가 일파만파로 퍼돌아다녔다. “이초석 목사님, 죽을병 걸렸다.” 그러나 우리 목사님은 천문천답이 ‘예수’다. 지금은 예전보다 갑절이나 더 큰 영력과 더 강한 체

력으로 더욱 강건하시다. 우리는 그런 목사님을 통해 살아있는 믿음을 소유한 의인들이다.

그렇다면 과연 무엇을 지향하며 싸워야 할지를 이제 결정해야 한다. 의롭게 산다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우리 주님이 이루어놓은 일을 우리가 믿음으로 누리며 사는 것이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찌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막16:17~18).

2018년도에는 먼저 “하나님 제일중심으로 참 믿음을 소유하고, 독을 제거하여 기도의 영력을 회복하고, 성령 충만을 힘입어 날마다 귀신을 쫓아내고, 권세 있는 새 교훈, 예수의 이름을 소유하여 하늘과 땅의 권세를 받아 주님을 높여드리”는 김정옥 전도사가 되라!”고 ‘나’가 ‘나’를 축복한다!

김정옥 전도사
jcc0115@naver.com

:: 나도 건강할 수 있다 ::

지인의 자살을 방지하려면

최근 유명 연예인의 자살은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다. 지인에게 남긴 그의 유서에는 이길 수 없는 우울감과 무력감, 자살을 암시하는 말들이 있었다. 자살에 대한 생각, 감정, 행동들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다. 자살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모두 심각한 우울증 환자나 정신질환이 있는 사람은 아니다. 그들은 어떤 특정한 시기에 고립감을 느끼며, 극심한 불행감과 외로움을 느끼는 보통의 사람일 수 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아무런 예고나 징후 없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은 드물다. 10명 중 8명은 그들의 자살의도에 대한 경고 신호를 보낸다. 이 경고 신호는 ‘도움을 찾는 외침’이다. 그런 신호를 알고도 ‘설마 진짜로 죽어야 하겠어?’ 라고 생각하는 것은 매우 위험할 수도 있다.

만약 지인이 간접적인 경우도 있지만,

직접 자살과 자살감정에 대해 이야기한다면 당신이 자살에 대해 이야기해도 좋다는 것을 허용하는 것이다.

지인이 당신에게 자살에 관한 암시를 보여주거나 이야기를 한다면 첫째, 자신이 돌보고 있음을 보여 준다. “나는 네가 걱정된다. 듣고 보니 정말 힘들었겠다.” 하고 공감하고 경청한다.

둘째, 자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직접적이고 명확하게 질문한다. “너의 맘속에 죽음에 대한 생각이 있니?” 질문을 통해 지인이 느끼는 중요한 변화, 상실, 성취할 수 없는 욕구들이 있는지, 지인의 내면의 감정이 어떠한지 살핀다. 또한, 사용할 수 있는 치명적인 수단이나 도구를 가지고 있는지, 구체적인 자살 계획이 있는지 등 위험도를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셋째, 도움을 준다. 특별히 죽을 이유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도와주어야 한다. 자살이 의심이 되면 그의 가족, 친지 등에게 알려야 한다. 가족들의 진심 어린 격려, 따뜻한 후원 등이 자살자의 상처 받은 마음을 위로해줄 수 있다. 부모형제, 친지 등 가족을 중심으로 한 사회적 지지는 최선의 자살 방패가 된다. 넷째, 자살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좋을지 떠오르지 않을 땐 주변의 전문가에게 도움을 청하고 관계기관에 연결하는 것이 중요하다.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하여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니라”(약 5:19~20).

Dr. 조희경
pearl9230@naver.com

그리스도의 향기

교만은 아니었지만 나의 신앙에 대한 자부심이 있었다. 그도 그럴 것이 어렸을 적 가족이 경험한 성령님의 치유하심으로 크리스천이 되었고, 유독 성령님의 역사가 강력하게 나타나는 교회에서, 목회자처럼 성도들을 기도로 훈련시키는 교회에서 줄곧 신앙생활을 해온 터라 타 교회에선 잘 하지 않는 방언도 잘하고 예수 이름으로 귀신도 쫓을 줄 알았기에 그런 자부심은 자연스러웠다.

해외에서 자그마한 한인 교회를 다닐 때였다. 아내와 함께 일을 하며 학업을 병행했던 시기여서 행복한 신혼이었지만 물질적으로 부족한 시기였다. 다들 어려운 이민 생활로 풍족한 사람들이 많진 않았지만 서로서로 물건을 주고받고 도움을 주며 살고 있었다. 우리 부부도 이런저런 도움을 많이 받았다. 먹을 게 있으면 챙겨주고, 어디 놀러 가면 같이 데려가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도와주고... 그곳엔 어느 미혼모도 있었는데 교회에서 자그맣게 돌파티를 열어주었고, 또 부족한 상황 가운데 결혼하는 청년의 결혼식도 올려주며 자기 일처럼 같이 준비해주고 축하해주는 것을 보았다. 학비도 없는 와중에 아내가 임신을 하게 되었다. 안 되겠다 싶어 금식기도를 하고 있던 어느 날, 그곳 교회 목사님이 과일 등 먹을 것을 잔뜩 가져다주신 적도 있었다. 그러던 중 깨닫게 되었다. 그리스도의 향기는 능력과는 다른 타인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것을 베푸는 행위에서 나는 것임을 몸소 느끼게 되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선택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주시진 않으셨을까. 한국에 돌아온 후 시간이 많이 흐르고 지금은 모든 형편이 좋아졌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느꼈던 그때를 생각하면 과연 지금의 나는 주변에 그러한 향기를 내고 있을까 부끄러워진다. 그래도 먼 훗날 주님 품에 안기게 되었을 때 내가 이 땅에서 머물렀던 자리에 조금이나마 그리스도의 향기가 남아있을 수 있기를 소망하며 다시금 마음을 다잡는다. **박찬영**

cross35@hanmail.net

